

최근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

(’14. 11. 24)

상파울루사무소

1 환시장 규제 강화

- 10월 중앙은행의 새 총재*가 지명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환시장 개입 및 암환전 시장과 수입결제에 대한 규제 등에 힘입어 공식 환율과 암달러 환율차이가 9월 90%에서 최근 50%까지 크게 축소되었음.

* Alejandro Vanoli : 경제학자, 전임 증권위원회 대표

2 무역 수지

- 9월 기준 최근 1년간 누적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U\$72억으로 8월 기준 1년 누적 흑자액(U\$75억)보다 U\$3억 감소
 - 9월 중 무역수지는 수출 U\$60억, 수입 U\$56으로 U\$4억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그 규모는 전월 U\$8억에 비해 절반 수준
- 내년에도 주요 수출품인 대두의 국제시세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수지 전망은 부정적임.

3 외환보유고

- 10월중 U\$5억 감소하여 U\$273억 수준이며, 이는 지난 6월 기술적 디폴트 이후 U\$20억 감소한 것임.

4 인플레이션 및 GDP

- 9월 중 GDP는 국내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4.2% 하락함.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간 인플레이션은 40%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스태그플레이션(Stagflation)을 넘어 슬럼프플레이션(Slumpflation) 양상을 보임

5

시장 반응

- 신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투자자들에게 내년에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현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
 - 아르헨티나 정부는 향후 중국과의 통화 스왑, 러시아로부터의 차입, 셰일가스 투자 유치 등 동원 가능한 달러 확보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중앙은행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아르헨티나 통화의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음.

아르헨티나 경제 지표

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(f)
경제활동						
실질GDP성장률(%)	△4.1	8.2	5.2	△0.4	3.3	△2.8
명목GDP(U\$10억)	378.5	462.7	557.7	603.2	611.8	587.9
1인당GDP(U\$)	9,432	11,419	13,636	14,611	14,684	13,987
연평균실업률	8.7	7.8	7.2	7.2	7.1	8.0
인플레이션						
CPI(%)	14.9	26.4	22.8	25.6	28.4	41.0
금리						
BADLAR (%)	10.00	11.25	17.19	15.44	21.63	22.00
국제수지						
ARS/USD 환율	3.80	3.98	4.30	4.92	6.52	9.10
무역수지(U\$10억)	16.9	11.6	10.0	12.7	8.0	8.0
경상수지(GDP당 %)	2.9	△0.2	△0.4	0.0	△0.8	△0.7
외국인직접투자(GDP당%)	0.9	1.6	1.7	1.8	1.3	0.8
외환보유고(U\$10억)	48.0	52.2	46.4	43.3	30.6	24.0
국가재정						
명목수지(GDP당%)	△0.5	0.2	△1.3	△2.0	△1.9	△2.5
순수공공부채(GDP당%)	38.9	35.5	32.1	32.7	33.1	37.9

*자료: 아르헨티나 중앙은행